



정교회 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부활 후 제4주일

중풍 병자 주일

성 파코미오스 대수도자

(제3조, 조과 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 38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가송 -- 부활절 의식서 39
- 사도경 : 사행 9,32~42 --- 253
- 복음경 : 요한 5,1~15-----99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기타 성가, 성모송, 영성체성혈
송은 부활절 의식서 참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

이 치유의 기적이 이 시점에서 기억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오순절 명절 기간에 행하셨기 때문이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정결의 연못'에서 삼십팔 년이나 앓던 병자를 치유하셨다. 주님은 이 병자가 나약함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다 아시고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가거라."라고 말씀하시며 자비를 베푸셨다.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증하기 위해 우리는 토마 사도와 향유가진 여인들을 기념했다. 주님의 승천 축일까지 다른 사건들이 계속 기념되는데, 히브리 민족의 명절인 오순절 오십일 동안에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고, 또한 요한복음 사도가 이 모든 사건을 거의 유사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와 학생들을 돌보기

크리스토퍼 무어 신부

중 학생이었을 때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에서 열리는 학생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친구들과 놀이를 하거나 성가를 부르고, 성경을 함께 읽곤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놀고 게임하는 것을 좋아해서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스티브라는 이름의 마흔 살쯤 된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분은 매주 남학생들을 위해 자원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분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제나 사목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성당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남학생들은 농담을 하면서 재밌게 노는 것을 좋아했고, 스티브 아저씨는 언제나 참을성 있게 우리를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그분이 해주신 말은 많이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이 신실하며 하느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분명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할 때 하느님을 향해 온 마음을 열고 기도하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삶에서 스티브 아저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각자는 가정 밖에서 하느님을 깊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앙과 삶에서 용기를 북돋워 줄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당신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우리가 하느님께 충실하고 신실한 것, 하느님께 규칙적으로 기도드리는 것, 다

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모습 등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속에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과 학생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 모두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할 수 있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다해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성인이거나 대학생이라면, 한 아이의 신앙 생활에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성당의 어떤 아이나 학생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키워나가라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벌써 어떤 아이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길 하느님께서 바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주일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챙겨주고 있으며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이나 취미, 관심 거리 등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아이의 부모를 잘 모르신다면, 그 부모 또한 만나보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성경이나 성물(성화, 기도매듭, 십자가), 또는 아이의 관심과 취미에 맞는 특별한 것을 선물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격려와 용기의 말을 적어주거나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3면으로 계속)

나는 적합한가?

안토니 M. 코냐리스 신부 [1926-2020]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은, “만일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하늘나라에 알맞은 사람일까? 내가 쓰는 언어는 하늘나라에 어울릴까? 내 태도는? 내 습관은 하늘나라에 적합할까?”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하늘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일생에서 하느님이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죄가 중심에 있었기에, 그분을 등지고서 아래로 내려가 그분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머무르게 될까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키시도록 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그리스도가 주시

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설 때이며, 그럼으로써 부활이 이루어질 때(그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영원히 그분과 같이 있게 되는 무리들 속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심판자로 앉아 계실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실 ‘두 번째 오심’(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서 ‘하루의 비타민’에서)



(2면에서 계속)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서 그 구절이 왜 의미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잠언 22,6)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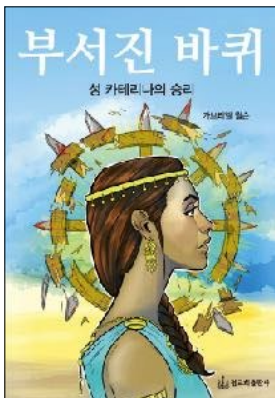
주간 예배 안내

- * 5월 18일(수) 오전 9시
오순절 중양일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 * 5월 21일(토) 오전 9시
콘스탄티노스 황제,
엘레니 모후 사도대등자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 신간 소개

부서진 바퀴 - 성 카테리나의 승리
| 가브리엘 월슨 지음 | 임마누엘
김하늘 옮김 | 정교회 출판사 |
104쪽 | 10,000원



카테리나 대순교자에 관한 만화 형식의 성인전으로, 성녀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고귀한 순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유익하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수도원 봉사

지난 5월 5일(목)에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장년회와 신데즈모스 회원들이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 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옛 텐트 자리에 있던 바닥 철재를 다 제거하고, 수도원 곳곳에 철쭉묘목 1,000주를 심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안식처인 수도원을 정리해주시고 아름답게 꾸며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고 바울로 권언건 사제 안식 5주년 추도식

지난 5월 8일(주일), 성찬예배에 이어 거행된 추도식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오늘은 기억과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신 영적 아버지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삶을 마감했는지를 보고, 그분들의 믿음의 모본을 따르라는(히브리서 13,7 참조) 사도적 권고에 따라 한국 교회를 위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봉직을 수행한 고 바울로 사제의 영혼의 안식을 기원하기 위해, 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오늘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바울로 사제는 여러분 대다수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인으로 태어나게 하였고(1고린토 4,15), 여러분을 정교회로 이끌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의 제단에서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고 바울로 사제의 가족분들에게 건강과 장수와 부활하신 주님의 모든 축복이 함께 하길,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모든 성직자들과 신자들의 기원을 전해드립니다.”라고 추모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성 카테리나 대순교자의 삶을 다룬 신간 서적을 소개하며, 어린이날 선물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한권씩 나누어 주었습니다.